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나리오 분야

작품 제목	가족을 위해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이름	소개
나 (차장)	일과 가정 모두 최고를 지향하는 커리어 우먼. 명주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건설부의 차장이다. 담당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완수하고, 당당하게 '내가 지은 집'에 입주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가 저지른 작은(?) 부패행위가 커커이 쌓여 엄청나고도 끔찍한 결과를 만들고 마는데...
남편	'나'의 남편. 업무에 치여 딸의 생일을 깜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아빠이다. 조카가 취업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다행히 건설한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비극 앞에서 조카 취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
소울 (딸)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나'의 외동딸. 일과 가정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또 최고인 엄마를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한다. 엄마의 모든 것을 닮고자 하는 소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비극 앞에서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된다.
저승사자	병원에서 죽은 영혼을 저승까지 인도하는 저승의 사자. 환자였던 영혼들이 놀라지 않도록 의사 가운을 입고 다닌다. '나'와 그 가족이 당한 사고의 원인과 실체의 민낯을 하나둘씩 공개한다.
현장소장	'나'의 담당이던 아파트 단지 건설 시공사 소속의 현장소장. 그가 고의건 실수건 저지른 크고 작은 실수와 비리들이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다.
시놉시스	
※ 기승전결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서술	
<p>눈을 떠보니 병원이다. 그리고 내 옆에 하얀 가운을 입고 서있는 낯선 남자. 그는 저승사자였다. 내가 왜 병원에 있는지 묻자 저승사자는 TV를 켜서 상황을 알려준다. 뭐? 방금 전까지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대화하던, 내가 지은 우리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저승사자 나에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는 나의 가족을 데려가려 한다. 나는 어린 딸 대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절규를 하는데, 저승사자는 자신만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내가 가족을 위한답시고 저지른 부패행위'들을 보여준다.</p> <p>우리 아파트를 짓던 당시 사업담당자로서 외근을 갔을 때 발견한, 철근과 콘크리트 부족 정황을 덮어주기 위해 뇌물을 받고 그 돈으로 딸의 생일 선물을 사는 나. 내력벽 위치를 설계와 다르게 만든 것을 무마하기 위해 채용 청탁을 하는 나. 그 결과 우리 아파트는 무너져버렸다. 이런 부패한 나의 모습에 실망한, 목숨까지 잃은 가족들은 저승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저승사자에게 죄 없는 가족 말고 차라리 이 모든 원흉인 나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저승사자는 청탁하지 말라며 거절한다. 그러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라고 절규하자 저승사자는 이승의 별을 다 받고 천수까지 누린 다음 저승에서 별을 받아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남긴다. 멀어져가는 가족과 저승사자를 보며 나는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울었다.</p> <p>그 때 현장소장이 준 뇌물인 검은색 신용카드를 머리맡에서 발견한다. 나는 분노에 차서 신용카드를 부숴버린다. 그리고 칠후 같은 어둠을 지나, 뇌물로 산 생일 선물 영수증을 버리려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나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 결제를 취소하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감사실장에게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흐르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청렴한 내가 가족을 살렸다.</p>	

시나리오 본문

낮선 천장이다. 온 몸이 마치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 여기는 어디지? 물결무늬 석고보드 천장에서 옆으로 눈을 돌리니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카메라처럼 뿌영던 시야가 서서히 돌아오니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얀 옷은 가운이었다. 의사임이 분명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여...여기는 어디인가요?”

“병원이에요.”

나의 물음에 그가 차트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제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 분명 아까 전 까지만 해도 가족들이랑 새 집에 이사를 끝내고 다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뭐야, 기억 안 나요? 참나...”

그가 몸을 돌리고는 자신의 뒤에 있던 TV 전원을 켰다. 상당히 긴장한 표정의 아나운서와 앵커가 무어라 열심히 속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화면 아래에 흐르는 자막을 유심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뭐? 우리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뒤이어 나오는 현장영상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아까까지 나와 내 가족이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이제 막 새 집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 돼서 한창 들떠있었던 그리운 그 집이다. 그 집이, 처참히 부수어져 잔해가 되어있었다.

“아...아니 멀쩡한 집이 왜 무너져요?”

“네? 멀쩡이요? 파하하하!”

그가 파안대소를 했다. 제정신인가?

“아니, 의사라는 사람이 지금 저 대참사의 피해자 앞에서 웃음이 나와요? 병원장 불러와요!”

“제가 의사라고요? 저 의사 아니에요.”

“그럼 가운은 왜 입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저는 저승사자예요.”

“저...저승...사...자...”

두려움에 몸을 움크리고 싶었지만 온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요즘은 거의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 저희도 심리적 충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냥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 아직 안 죽었어요. 정확히는 죽을 때가 아니지.”

“그...그럼 왜 온 거죠?”

“엄마...”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니 사랑하는 내 딸과 남편이 보였다. 옷은 환자복인데,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울아! 여보! 둘은 왜 피를 그렇게 흘리고 있어?”
“두 분은 저를 따라 저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사자님, 저는 데려가셔도 되는데 부디 제 딸만은...”
“엄마... 나 엄마 떠나기 싫어...”

소울이가 내 병원복을 잡아당겼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니, 엄마로서 용납이 안 됐다. 저승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 돼요! 안 돼! 내 딸 보낼 수는 없어.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데! 고3이라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는데! 대학도 가야하는데! 시집도 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살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린 나를 데려가요!”

저승사자가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게, 그 때 왜 그랬어요? 하아... 하긴 누릴 만큼 누리기는 했네. 온갖 부정부패를.”
“네?”

갑자기 주마등같은 것이 스르륵 스쳐지나갔다. 그렇지만 분명 주마등은 아니었다. 이 주마등 비슷한 것을 내 가족과 저승사자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의 주마등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겠다. 흐르던 장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 내가 외근을 갔을 때로 멈췄다. 현장 소장이 내 옆에서 굽신 거리고 있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콘크리트도 규정보다 적게 타설하시고, 철근도 이만큼 누락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30%밖에 진행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아이 죄송합니다. 준공일은 계속 다가오는데 자재 납품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만 이렇게 됐습니다. 딱 요만큼만 이렇고 나머지는 제대로 다 했습니다.”

“담당자인 제가 안 이상 그냥은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리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차장님, 차장님께서 그러시면 저희 죽습니다 진짜로.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정말로 여기만 이렇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애처롭게 부탁하니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른 곳은 다 규정대로 진행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 중간에 잠깐 자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재가 잘 들어오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실수 정말로 없을 겁니다.”

“하... 일단은 내부 논의를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때 소장이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게 보였다. 검은색 신용카드였다.

“이게... 뭔가요?”

“저희 회사 법인카드입니다. 월 한도 200만원이니까 매달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건 분명 뇌물이다.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내

딸 소울이가 한 달 전에 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엄마, 나 태블릿 한 대만 사주면 안 돼요? 인강 볼 때 쓰려 하는데... 좋은 거까지는 필요 없고 인강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친구들은 다 그거로 인강 보면서 진도도 더 빨리 나가는데 저만 없어서 조금 뒤처지는 거 같아서요.’

잠시 망설이던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카드를 받았다.

“그럼 이번은 그냥 조용히 할게요. 근데 진짜 앞으로는 꼭 적합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앞으로는 차장님 걱정시켜드릴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장님!”

소장이 90도 인사를 두 번이나 연거푸 하며 말했다. 이윽고 장면은 다시 흘러 내가 백화점에 간 장면에서 멈추었다. 나는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태블릿 PC에 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태블릿 얼마예요?”

“네, 80만원입니다. 혹시 직접 쓰시려는 건가요?”

“아뇨,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인강 보겠다고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하나 사주려고요 하하!”

점원이 웃으면서 옆의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따님이 고등학생이면 유행에 민감하시겠네요.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이 제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격은 20만원 정도 더 비싼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고 성능도 좀 더 좋아서 따님이 훨씬 좋아하실 겁니다. 무게도 이게 더 가볍고요.”

“그래요? 흠... 뭐 그게 유행이라 하니 그럼 그거로 주세요. 아, 그리고 그 펜? 여기다 필기하는 거 그것도 같이 살게요”

“네 그러면 다 해서 120만원인데, 저희 지금 행사 중이어서 5퍼센트 할인 들어가면 114만원입니다. 저쪽에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원의 안내에 따라 나는 진열대에서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점원이 제품을 종이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결제는 카드로 하실까요?”

“네 카드로 할게요.”

나는 지갑에서 소장이 준 검은색 카드를 꺼내 건넸다. 점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고는 잠시 후 인쇄되는 영수증과 함께 돌려주었다.

“114만원 결제 도와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직원이 건넨 종이가방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은 구겨서 그대로 출입구 옆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흘러 그 날 저녁의 우리 집에서 멈추었다. 나와 딸, 남편 세 사람이 케이크를 가운데에 두고 오붓하게 앉아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울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나와 남편의 노래가 끝나자 고깔모자를 쓴 예쁜 딸이 웃는 얼굴로 촛불을 후 불어서 껐다. 우리 세 사람은 박수를 쳤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이걸 선물~”

내가 종이 가방을 건네자 딸이 웃으며 받았다. 그리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꺼내어 확인하고는 얼굴이 더욱 환해지며 함박웃음을 만개했다.

“엄마! 이거 진짜야? 대박!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

“어유 여보, 저거 비싸지 않았어? 저건 또 무슨 돈으로 샀대? 나도 귀땀 좀 해주지.”

남편의 질문에 나는 다소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 회사에서 이번에 행사 하나 했는데, 거기서 내가 잘 해서 상금을 좀 받았어. 그거로 산거야. 하하...”

“이야, 우리 와이프 능력자네! 상금도 타고! 하하하! 이 집도 여보가 지었잖아!”

“그...그럼! 나 이런 여자야~”

“우리 엄마 짱! 엄마 진짜 잘 쓸게요!”

딸이 태블릿PC 상자를 흔들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그거로 너무 놀지만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당연하지! 진짜 인강 보려고 사 달라 했던 거예요!”

그 때 남편이 내 어깨에 팔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했다.

“우리 소울이는 능력 좋은 엄마 만나서 좋겠다!”

“히히 당연하지! 근데 아빠는 선물 없어요?”

“어? 어...그게...”

망설이는 남편에게 쏘아붙이듯 이야기 했다.

“여보, 설마 딸 생일을 깜빡 했어?”

“아...아니야! 그럴 리가. 내 생일은 잊어도 딸 생일은 반드시 기억하지. 바빠서 살 시간이 없었어! 딸, 아빠는 선물로 용돈 줄게. 자 여기 20만원.”

“뭘 그렇게 많이 줘요. 그냥 10만원만 받을게요. 고마워요 아빠!”

주마등같던 장면이 끝나고 다시 병실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설마 그거... 뇌물 받아서... 산거야?”

딸의 얼굴을 보니 실망했다는 표정이었다. 내 옷을 붙잡고 있던 손도 놓았다.

“아... 아니야! 그건 뇌물이 아니라...”

“뭐가 뇌물이 아니야! 난 진짜 엄마가 순수하게 자기 노력으로 얻은 상금으로 사준 건물 알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는데...”

딸의 이야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분명 나는 그동안 딸 앞에서 항상 떳떳하고 멋진 엄마였는데. 내 일과 가정, 둘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법 없는 완벽한 워킹맘이었는데. ‘나도 나중에 크면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항상 딸아이의 존경을 받는 그런 엄마였는데. 그런 내 소중한 하나뿐인 딸에게 모든 치부를 보이는 기분이었다.

“소울아, 그래도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이잖아.”

남편이 소울이의 양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소울이는 오른손을 들어 왼쪽 어깨에 올라온 남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가족... 맞아요. 가족은 끔찍이도 챙기셨죠.”

저승사자의 이야기에 가족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아까와 같은 주마등 비슷한 것이 펼쳐졌다. 이번에는 어느 날 출근 시간이었다. 무너진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기 3년 전인 어느 전셋집이었다. 남편은 아침밥인 샌드위치를 먹다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기를 들어보고는 전화를 받았다.

“응 누나. 아... 현성이 또 떨어졌어? 아이고... 뭐? 벌써 10번째 떨어졌다고? 예휴... 누나도 누나지만 현성이 그 녀석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누나, 현성도 얼마나 붙고 싶었겠어. 엿저녁에 술 그렇게 먹고 들어왔어도 좀 이해해줘. 지켜보는 누나도 힘들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응응 알았어. 현성이 해장국 잘 끓여주고. 응~”

“왜, 현성이 또 떨어졌대?”

나의 물음에 남편이 한숨을 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응. 개가 아무리 학벌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집이 어려우니 일부러 성적에 맞는 곳이 아니라 집 근처 학비 싼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한 건데, 자격증 여러 개 따고 해도 학벌 때문에 안 받아 주 나봐. 예휴... 어젯밤에는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지 술이 진탕이 돼서 들어왔대. 불쌍해서 어떡해... 개는 4년 내내 과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놈의 학벌주의...”

나는 입에 잔뜩 문 샌드위치를 꿀꺽 삼키고 이야기했다.

“어휴 그러게. 현성이 정도면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인성도 바른데 참... 공기업은 생각 없대? 그래도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학벌은 안 보는데...”

“안 그래도 누나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사기업 가서 해외 유명한 랜드마크 같은 거를 짓고 싶다 나봐. 공기업 가면 그런 건 안 하잖아. 이제 고영E&C만 남았다는데...”

“응? 거기 우리 회사 현장 시공사인데? 거기 건설하고 괜찮아. 잘 되면 좋겠네 진짜.”

“그러게...”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한 입 물었다. 그때 사랑스러운 딸이 눈을 부비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엄마 아빠 잘 잤어요? 하아암”

“응~ 딸, 잘 잤어? 와서 밥 먹어.”

딸이 내 옆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집어 드는 찰나, 갑자기 장면이 긴급히 움직였다. 그리고는 내가 우리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근을 나갔던 그 시공간에서 멈췄다.

“아니 소장님! 다시는 저 난감하게 안 하신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차장님... 저는 제대로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 인부들이...”

“인부 분들이 왜요! 설마 책임 전가 하시려는 건가요? 여기 있어야 할 벽이 10cm나 밀린 거는 인부 분들 실수라기보다는 시공사의 관리감독 문제 아닌가요?”

내가 도면 상 내력벽이 있어야 할 위치와 실제 세워진 내력벽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하니 현장소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답했다.

“이게... 저희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하도급 업체랑 거기 직원들이 너무 대충하려고 합니다. 매번 잡아내고, 내쫓고, 시정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미처 못 본 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초반에 진행할 때 신입사원이 투입됐는데, 그 사원이 이 부분을 미처 못 본 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이 처음이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를 너무 믿었나 봅니다.”

소장이 굵신거리며 이야기 할 때 나는 천장을 가만히 보기만 했다. 당시의 나는 뭔가 멍하니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때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다.

“신입사원... 그래요 신입사원 분께서 놓쳤다 하셨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이 경험이 없다 보니...”

“소장님, 지금 거기 공채 중 아니신가요?”

내가 시선을 천장에서 소장을 향해 옮기며 이야기 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면접 진행 중일 겁니다. 발표까지 한 사흘 남았죠?”

“소장님네 회사 그래도 나름 규모도 있고, 조만간 대기업까지 갈 회사인데,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면 이번 건 그냥 눈감아드릴게요.”

“뭔가요?”

“그 회사 지원자 중에 아마 조현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명주대학교 졸업자구요. 개가 제 시택 쪽 조카인데, 톨톨합니다. 관련 자격증도 2개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최종합격 시켜주시면 제가 이번 건 어떻게든 무마시켜볼게요.”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네 차장님. 제가 인사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조현성씨는 무조건 합격시키게 만들겠습니다.”

“네 좋아요. 겨우 10cm 차이인데 큰일 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기 조금만 보강해주시

고, 제가 어떻게든 감리 설득 시킬 테니까 채용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현장 소장이 연거푸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다시 주마등 같은 장면이 이동하여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에 멈추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어 누구인지 확인하고는 전화를 받았다.

“응 누나. 어. 뭐? 현성이 합격했다고? 아이고 진짜 축하해! 누나랑 매형도 그렇지만 현성이 그 녀석 한시름 놓았겠네! 하하! 누나도 너무 고생했어. 현성이 그만큼 컸으면 아주 잘 키웠다 진짜. 응 저녁은 지금 먹고 있지. 빨리 현성이 녀석 도착하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줘. 응. 응~ 축하해!”

남편이 환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아빠, 현성 오빠 취업했대?”

“응! 드디어 11번째로 면접 본 고영E&C라는 회사에 합격했다 하네. 원서 지원한 회사 중 마지막 남은 곳이었다고 하는데 어휴 이 얼마나 다행이야.”

“어머~ 너무 잘 됐다. 여보, 현성이랑 소울이 고모님께 축하금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맞네. 모바일로 보내지 뭐. 보자... 누나... 20만원... 보내니... 보태서... 현성이... 맛있는 거... 사줘... 오케이 보냈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어 시누이에게 송금을 하고는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끝으로 주마등 비슷한 이 장면이 모두 끝났다. 나는 누워있는 채 남편을 쳐다보았다. 상당히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내 조카가 그 회사 들어간 게 이런 거였어? 개는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입사한 줄 아는데...”

“나... 나는 당신 조카가 잘...”

“내 조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대참사를 만든 회사인데 내 조카가 앞으로 잘 될 거 같아? 우리 아파트 잘못 지어서 무너트린 그 고영E&C 출신이라 하면 누가 또 뽑아줄까?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차라리 지금 백수였다면 내 조카 커리어는 최악이 아닐 텐데... 당신이 뇌물 안 받고, 채용청탁 안 하고 업무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나랑 소울이도 살았을 텐데...”

남편이 두 손으로 마른세수를 했다. 그런 그이를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정적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저승사자가 이 조용함을 깼다.

“차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슬슬 저희도 저승에 가봐야 해서요. 염라대왕님은 청렴하고 엄격한 분이셔서 제가 너무 늦으면 밖에서 탄 짓하고 왔다고 오해하세요.”

저승사자의 난처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나를 원망의 눈빛으로 보는 남편과 소울이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푸욱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승사자를 바라보았다.

“사자님...”

“네.”

“이 모든 사건은 제가 원흉이고, 또 제가 만든 일이니... 불쌍한 우리 가족 살려주시고 죄 많은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저승사자는 웃음기를 싹 뺀 얼굴로 이야기 했다.

“차장님. 지금 저한테 청탁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명부에도 없는 차장님 영혼을 데려가는 대신에 이 두 분을 살려달라면서요. 이게 청탁 아니면 뭔가요? 이거 대왕님이 알면 경을 쳐요 경을! 요즘이 옛날 같은 줄 아시나.”

“그... 그게 아니라 제 소중한 가족...”

“또또또 나왔네 그놈의 가족... 차장님!”

저승사자의 호통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소중한 가족을 위한답시고 저지른 부패행위들이 결국 가족에게 위해(危害)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족을 위해서 그러겠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뒤통수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그리고 저승에 가야할 영혼을 억지로 이승에 묶어 놓으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차장님 마음 잘 알지만, 지금 가족을 위한답시고 하는 이 행동을 실행에 옮기면 결국 또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에휴... 시간 없으니 어서 가시죠.”

저승사자의 말에 남편과 소울이는 나로부터 등을 돌려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저승사자도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안 돼! 가지마! 차라리 나도 같이 데려가!”

나의 절규에 세 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다시 내게로 돌렸다.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다.

“그건 안 되죠.”

“왜요! 왜 안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죽을 때가 아니라고. 당신은 살아서 이 이승의 법도에 따라 받아야 할 벌들이 아직 남았어요.”

“네?”

“당신의 부패행위는 이 두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니에요. 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새 시작을 꿈꾸던 무고한 시민들의 수많은 목숨도 앗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의 법에 따른 벌을 다 받아야지요. 꽤 오랜 시간 감옥에 계셔야겠군요.”

저승사자의 말을 듣고 병실에 있는 TV의 뉴스를 보니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현장소장님의 모습과 함께 내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다. 화면 아래에는 ‘공직자의 비리가 만든 끔찍한 후진국형 참사’ 라는 자막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명이 다 할 때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저승에 와서 다시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으셔야죠. 지금의 당신에게 저승행은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에요.”

"그... 그래도 제발 저도 데려가주세요... 제발 선처를..."

"그러게 누가 부정 청탁하는 사람을 믿으라고 했어요? 청탁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행실인데,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처리도 깔끔할 리가 없는데 찻찻..."

"제... 제발..."

"저 바쁘니다! 당신이 한 짓의 결과 때문에 데려가야 할 영혼이 한 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갑시다. 다음은 한솔병원이던가?"

멀어져가는 세 사람을 보며 나는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울었다. 그 때 머리맡에 놓인 검은색 카드가 보였다.

"그 때... 그 때 이 카드만 안 받았어도!"

나는 그 카드를 반으로 부숴버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온 세상이 새카맣게 변하였다. 이 어둠과 내 자아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공허한 어둠 속에서 서서히 각종 소음이 들려왔다. 익숙한 클래식 소리.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목소리. 분명 도시의 소리였다.

"고객님! 어디 안 좋으세요?"

"...예?"

정신차려보니 백화점 출입문이었다. 내 눈앞에는 백화점 도어맨이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서있었다.

"갑자기 멍하니 서서 울고 계셔서..."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안 좋은 생각이 나서..."

도어맨의 말에 오른손으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다. 그 때 내 오른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는 것이 느껴졌다. 손을 펴보니 아무렇게나 구겨버렸던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태블릿을 샀던 그 영수증이다.

"고객님 혹시 불편하시다면 제게 말씀주세요. 제가 도움을..."

"아, 아니에요! 저 잠시 만요!"

걱정하는 도어맨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다. 태블릿 매장의 점원은 다시 돌아오는 나를 보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 고객님? 혹시 제품에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뇨. 제가 카드를 잘못 써서요. 하하! 죄송하지만 아까 거 취소해주시고 이 카드로 다시 결제해주시겠어요?"

"아~ 네 물론이죠. 잠시 만요. 혹시 아까 영수증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구겨버린 영수증을 점원에게 건넸다. 점원은 영수증에 있는 바코드를 매장 포스기에 찍고는 무언가 열심히 눌렀다.

"아까 잘못 결제하신 카드랑 다시 결제하실 카드 주시겠어요?"

"네, 이게 다시 결제할 카드예요."

점원이 내가 준 카드 두 장을 가져가서 카드 단말기에 검은색 카드를 먼저 끼워 넣었다. 무미건조

한 기계음이 한 번 울리자 점원은 단말기에서 검은색 카드를 빼고는 아까 같이 건넨 하얀색 카드를 끼워 넣었다. 다시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한 번 울리자 인쇄되는 영수증과 카드 두 장을 돌려주었다.

“예 고객님, 여기 다시 결제된 영수증이랑 카드 두 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가끔 법인카드랑 개인카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점원에게 인사를 한 후 발걸음을 돌렸다. 한참을 걸어 출입구에서 아까 그 도어맨과 인사를 주고 받고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찾아보고는 전화를 걸었다.

“아, 감사실장님 안녕하세요. 퇴근하셨을 텐데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장 소장님으로부터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데, 그 앞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받고는 자진신고 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내일 출근해서 말씀하신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 멀리서 오는 택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내 앞에서 멈춰선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소중한 우리 가족이 사는 전셋집으로 가자고 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입가에 흐르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오늘 나는, 가족을 위해 청렴했다. 그리고 그 청렴이 내 가족을 살렸다.